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섬 (12)

# 판 커지는 청년작가 육성... 지역 배출 동반돼야

### 전국 공모하는 도미술대전 제주 거주 포함 청년작가전 지역 가점 역할별 주장 속에 도내 예술대학 연계 강화를 청년 예술 조례도 적극 활용

제주지역 청년작가를 발굴,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의 '신인 등용문'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시상금이 이미 1000만원으로 올랐고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제주청년작가전은 올해 사업비가 종전보다 4배 증액된 1억원에 이른다. 바야흐로 청년작가들의 계절인 듯 하지만 지역 체감도는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제주지역 대학 졸업생 점유율 낙관 못해=미술협회제주도지회는 지난 2일 46회째인 제주도미술대전 입상자를 발표했다. 대상 작가에겐 평론

가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음해 전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의 신인작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미술협회도지회가 제주도의 예산 확충을 통해 미술대전에 변화를 준 결과다.

도문화진흥원은 26회를 맞는 2020년 제주청년작가전의 운영 방식을 바꿔 공모로 3인의 작가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의 창작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9월 청년작가전 전시를 앞두고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시각예술 분야 청년작가들을 위한 이같은 사업은 전국 공모(도미술대전)로 진행되거나, 제주에 일정 기간 거주한 도외 작가(제주청년작가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온전히 '제주'에서 활동해온 '청년작가'들이 그 기회를 계속 가져갈지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역 예술대학과 연계한 청년작가 육성이 중요해 보인다. 도미술대전, 제주청년작가전의 주인공들은 오랜

기간 제주도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이었지만 근래 선정 작가 명단에서 보듯 도내 대학 출신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어서다.

▶전시·평론·마케팅 지원 기관 간 협력 필요=셋벌처럼 떠오른 지역 청년작가들이 지속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별도 전시공간이나 평론·마케팅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반짝' 열기로 끝날 수 있다.

공립미술관과 손을 잡아 이들을 기획전 등으로 노출시키고 미술관 네트워크를 통해 제주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제주가 키워내는 '스타 작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는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 (2018년 기준) 보고서를 보면 청년작가 참여 전시를 개최한 전국 국·공·사립미술관은 143곳 646회였다. 이중에서 제주는 8곳에서 단체전(10회) 위주로 총 13



미루나무꼭대기창작소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펼치고 있는 기획전 '랩(Lab) 2020'.

## 끝없는 질문들로 펼친 미술 실험실

### 미루나무꼭대기창작소 어린이 프로젝트 수업 '랩 2020' 기획전 답아

호기심 어린 아이들의 시선이 드러나는 작품이 전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제주 미루나무꼭대기창작소(대표 조기섭)가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고 있는 '랩(Lab) 2020' 전이다.

이번 기획전은 '실험실(Laboratory, LAB)'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관심과 생각을 표현해 놓았다. 세상에 대한 무한한 궁금증을 가진 아이들이 미술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며 흥미롭게 탐구한 과정을 시각 작업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랜드마크 투어, 장면방정

식, 신비한 인체사진, 스포츠와 규칙, 미술관 옆 놀이터, 기후의 숲, 태양의 8가지 색깔 등 30개 소주제로 짜여졌다. 아이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빛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미루나무꼭대기창작소는 이번 전시에 대해 "아이들이 나와 주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가주의 미술교육을 지향하는 미루나무꼭대기창작소는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활동한다. 2008년 개원 이래 '어린이미술학교 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서귀포 예술영재교육원 작품 전시회-함께 웃는 웃음' (서귀포학생문화원), '다빈치 노트의 비밀을 풀다' 1~5 (제주도립미술관) 등 다수의 전시를 가져왔다. 이번이 스물두 번째 기획전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전시는 랜드마크 투어, 장면방정 064) 702-0077. 전선희기자

## 공립박물관 인증률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최우수

제주지역 공립박물관 인증률이 100%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국 공립박물관 227개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평가 결과다.

이번 평가는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과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인증 기준을 충족 상위 70%로 정하고, 2개 이상 범주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종 157개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인증률 69.2%)했다.

제주에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서귀포공립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문화전시관,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박물관, 해녀박물관 등 평가 대상 7곳 모두 인증기관에 들었다. 최우수 기관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선정됐다. 16개 시·도 중에서 인증률 100%인 지역은 제주, 부산, 광주, 대전 4곳이다. 전선희기자

## 생을 얻는 나무에 잊혀졌던 동심

### 문정호 네 번째 개인전 순수성 담은 '상생하다'



문정호의 '즐거운 동네' (나무판넬 위에 아크릴, 2019).

여든이 넘는 나이에 피워올리는 창작의 열정을 담아낸 전시가 있다. 지난 1일부터 '생(生)을 얻는 나무-상생하다'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정호 개인전이다.

문정호 작가는 미술을 전공한 막내딸(문숙희)의 기획으로 2015년 이래 꾸준히 개인전을 펼쳐왔다. 이번이 네 번째를 맞는다.

딸 숙희씨는 아버지의 작업이 나무사랑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문 작가는 조각 작품으로 창작을 이어오다 2-3회 개인전에서는 나무 프레임 위에 회화 작업 위주로 선보였다.

이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의도로 작업을 벌였다. 선사시대의 벽화, 아프리카 대륙의 원시미술처럼 순수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창작하려

고 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동심이 있다.

문 작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발견하고 이 세계를 바라봤으면 한다"며 "생을 얻는 나무처럼 전시장을 찾아 좋은 기운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회화와 목조각 등 6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달 20일까지 KBS제주 전시실. 전선희기자

## 문예재단 본부 없애고 1실 12팀 가나

### 새 이사장 조직 개편 추진 서귀포사무소 TFT 신설 "기획 강화·수평적 구조"

### 3년 전 중단 공무원 파견설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개편안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현재 2본부(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사업본부), 6팀(기획조정·경영지원·예술창작·생활청년문화·문화예술교육·지역문화·일상문화·문화복지팀), 1사무소(서부권사무소 예술꽃산양)·1사무소TFT(서귀포사무소 TFT)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TFT 방식으로 서귀포사무소를 세우는 등 지역 문화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자체 경영진단이 진행되는 와중에 불거진 개편안 내용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재단 일각에서는 출연기관에 애써

설치한 본부를 들어낸 자리에 경영기획실 산하 3팀을 제외한 나머지 9팀(TFT 포함)을 이사장 직속으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개편안이 과연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경영기획실엔 제주도 공무원 파견설까지 나돌면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되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예재단은 2001년 개원 이래 3급~4급 파견 공무원이 사무처장을 맡아오다 8대 이사장이 재직하던 2017년 8월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며 제주도와의 협의회 공무원 파견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육성 조례엔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살아있다.

이와관련 문예재단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했고 조직 정상화와 변화의 동인을 위해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장에 기반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경영진단 결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공무원 파견 건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4일 개최되는 문예재단 이사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 더맨 신사정장과 강남한복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넓은 주차장과 가족 모두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품격있고 격조있는 디자인, 장인정신이 묻어나는 강남한복, 더맨양복에 놀라실 것입니다.

니가 왜 이제야 왔어~ 기다렸는데~

## 정장/한복

# 최저가

양복 대여 39,000 / 한복 대여 99,000

8월 12일 OPEN

제주시 오남로 20  
064 752 8899

신사정장전문브랜드 더맨 | 서사라사거리 | 연삼로 | 보건소사거리 | 연삼로 | 제주시보건소

| 신사정장 전문브랜드 | **The MAN** | 강남한복 | 판매·대여 전문점 |